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최상진·한규석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자연과학의 탐구모델을 취하고 있는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객관성이 지닌 문제점을 주관성과 구성주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아울러, 심리학 개념과 이론이 추구하는 보편성의 문제를 현상적 측면과 개념의 실행성, 가치추구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심리학에서의 사회성의 회복문제를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문화심리학의 필요성, 등장 배경, 및 그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인지중심적 문화심리학과 활동중심적 문화심리학을 구분하였다. 또한 문화심리학의 접근 틀 속에서 한국인 심리학의 구축가능성과 당위적 필요성을 논하였다. 마음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한국의 문화심리학 구성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끝으로, 한국사회의 관찰로부터 자생적인 개념들을 발굴 탐구하는 것이 한국인의 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그 길만이 세계의 학계에 한국을 심리학이론의 생산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됨을 주장하였다.

심리학은 Wundt가 심리학의 성격을 주장할 당시부터 복합학문으로 발단(發端)되었다. 그가 심리학을 크게 두 개의 영역, 즉 실험심리학(experimental psychology)과 민족심리학(volkerpsychologie)으로 구분할 때부터 이미 두 개의 상이한 심리학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Wundt의 심리학에서 발전되어온 현대 심리학은 대상영역의 확장과 접근방법 및 이론의 다

양화와 세지화(細枝化)와 이에 따른 방법론적 다지화(多枝化)가 이루어지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통합성과 정체성은 약화되게 되었다. 어떤 연구나 이론이 심리학적 연구이거나 심리학적 이론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냐는 그 연구자나 이론제안자가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심리학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정도로 심리학의 분야간, 접

근간 이질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 이질화의 정도는 분야가 다른 심리학자간에 연구에 대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테두리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이론을 비교적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은 ‘심리학’이라는 기존의 전통적 명칭보다는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s)’이라는 복합적 성격의 학문 명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리학의 성격과 관련하여 심리학을 인문학으로 기울어진 학문인가 아니면 자연과학에 가까운 학문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 자연과학 성격의 학문으로 규정하고 특성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심리학을 과학(science)이라고 부르거나 심리학자들 스스로 과학자라고 자처하는 데는 심리학자들간에 별로 큰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과학자로서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개념과 접근이 과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즉 객관성, 보편성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본 연구는 심리학의 개념과 방법이 지니고 있다는 객관성, 보편성에의 믿음을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문화심리학의 입장에서 해체하고, 사회현상을 명시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성’이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이어 대안적 접근으로 문화심리학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심리학이란 사회과학적 성격의 심리학(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산업심리학, 인지심리학 등)을 주로 지칭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심리학을 지칭하기도 한다. 필자들은 심리학에서 문화를 심리과정의 핵심적 요소로 끌어들이는 문화심리학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통해 국제학계에서 활발한 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문화심리학이 어떻게 한국인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왜 심리학이 자연과학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가?

심리학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의 성립과정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크게 도움된다. 일반적으로 현대심리학의 탄생을 독일의 Wilhelm Wundt가 Leipzig 대학에 심리학실험실을 개설한 1879년 이후로 본다. 당시의 학계는 생물학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1859년에 Darwin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여 진화론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기한 이후 인간은 동물과 같은 연장선에서 진화된 존재로 취급되었다. 마음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동물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심리학적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화론자인 Spencer(1871)는 ‘심리학의 원리’란 저술속에서 종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지능(intelligence)을 사용하며, 심리학을 생물과학으로 제시하고 있다(Danziger, 1997, p. 69). Darwin도 ‘인간과 동물의 정서표현’이란 1872년 저술에서 정서의 분명한 표현을 지칭하면서 태도(attitud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Danziger, 1997, p. 135). 1899년에 저명한 동물학자인 Jennings는 ‘원생동물의 심리학’을 출간하였다. 이같이 심리학의 많은 용어(행동, 자극, 태도, 학습, 지능 등)들이 그 연원을 생물학에 두고 있으며, 더욱이 심리학과 생리학의 구분이 매우 애매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감각의 영역이다. 감각기관의 연구는 생리학이지만, 감각기관의 작용결과인 지각(sensibility)은 심리학의 영역인 것이다(Danziger, 1997, pp. 52-53). 이러한 학문적 풍토에서 Wundt는 관심을 인간의 지각으로 확대시키면서, 그가 개설한 실험실에서 20세기초까지 즉각적인 의식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를 내성법에 의해서 추구하였다. Wundt에게 있어서 내성법은 내부지각(inner perception)의 한 형태이었던 것이다. 그는 인간(개인)을 의

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생리학이고, 내부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심리학인데, 두 분야가 합해서 생리심리학을 구성한다고 보았다(Danziger, 1980). 즉 심리학 연구는 철저히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 전통—특히 생물학—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전통에서 그는 내성법으로 고등의 사고를 연구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¹⁾

20세기초에 이미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었지만, 결국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통합과학에 의해서 이들 다양한 영역들이 설명될 수 있는 보편적인 공통의 과학적 법칙이 발견되리라 보았다. ‘행동’도 이 시기에 심리학에 등장한 개념인데 동물심리학자인 Lloyd Morgan은 1900년에 ‘동물행동’이란 교재를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룬 이 전판에서는 ‘비교심리학’, ‘동물의 삶과 지능’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였다. 1897년에 동물학자인 Jennings는 ‘원생동물의 심리학’이란 책을 냈는데, 1904년에는 비슷한 내용을 ‘Paramecium의 행동’이란 제호로 냈다. 이 당시 생물학적 심리학에서 다루는 동물의 의식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기에, 보다 객관적인 실제과정을 다루기 위해 행동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1911년에는 ‘동물행동학지’가 발간되기 시작되었고, 1912년에는 기능주의 심리학자인 Angell이 미국심리학회 대회에서 ‘심리학의 범주로서 행동’이란 글을 발표했으며, 2달 후에 Watson이 ‘행동주의자가 본 심리학’을 발표하며, 행동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미 심리학은 태동기부터 생물학이란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써 연구되었고,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전통은 생물심리학, 감각심리학, 정신약물학 등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 언어, 인지, 사회, 인간의 사고, 발달 등을 다루는 인간과학적 심리학의 탐구에도 영향을 주며 오늘까

지 뿌리깊게 내려오고 있다.

객관주의의 문제

논리실증주의적 전통에서 서있는 과학자들은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항상성의 미리 주어진(pre-given) 대상이 있다는 관점을 갖고 대상과 대상의 관계 또는 대상의 불변하는 속성을 밝히고자 노력한다. 이를 객관주의라고 한다. Comte에 의해 주장되고 Vienna 학파에 의해 확립된 논리실증주의에서 보는 과학은 관찰과 조작이 가능한 개념과 대상들의 관계를 연역적으로 이끌어 낸 진술문(법칙따위)과 그에 관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구축되어 가는 작업이다. 이들은 관찰자와 대상은 독립적이며, 관찰자가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써 대상들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에도 동일한 접근이 가능하며,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고등학문은 물리학, 화학 등의 기초학문의 현상적 분야를 다루는 것이라는 환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통일과학(unified science)을 추구한다(Bem & de Jong, 1997, p. 44)

이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취하는 논리 중에서 객관성의 문제는 인식론적으로 다양한 공격을 받았다.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이며, 관찰되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는 입장에 의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즉 시계를 보는 행위는 시간이라는 배경지식을 지니지 않았을 때 무의미한 동작이며, 천동설을 믿는 사람과 지동설을 믿는 사람이 같이 관찰하고 있는 떠오르는 태양은 전혀 의미가 다른 별개의 자료라는 것이다(Hanson, 1958; summarized in Bem & de Jong, 1997, p. 51). 따라서 모든 자료는 연구자의 관점이 해석을 좌우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심지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1) Individual consciousness is wholly incapable of giving us a history of human thought, for it is conditioned by an earlier history concerning which it cannot of itself give us any knowledge.(Wundt, 1916, p. 3; cited in Farr, 1996, p. 25)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조차도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가설은 자료의 해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론적 문제점에 더해, 객관성을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를 연구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자극을 가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며, 자극과 반응의 객관적 관계를 구명하는 노력들을 보여왔다. 그러한 작업에서 소위 객관적으로 조작되어 주어지는 자극은 피험자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지만 국부적인 연구영역으로 다루어졌을 뿐 심리학 전반의 연구관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사람마다 동일자극에 대한 인식세계가 다른 것을 보여준 연구들은 여럿이 있다. 1954년에 다투머스와 프린스턴대학 간의 미식축구 경기필름을 똑같이 두 대학의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필름을 본 것처럼 선수들의 행동을 묘사했다(Hastorf & Cantril, 1954). 사형판결에 대한 찬반의견과 각 의견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모두 담은 내용을 똑같이 보여주었을 때, 사형옹호론자와 반대론자들은 모두 자기들의 입장에 유리한 증거들을 접수하고 불리한 증거들은 무시하거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돌리므로써 자신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견해가 더욱 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Lord, Lepper, & Ross, 1979).

사람들의 인식세계가 상황마다 다르고 개인(혹은 집단)마다 다를 수 있음은 많은 이론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객관주의에 대응하는 주관주의(subjectivism)는 문화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성되는 내적 정보처리구조에 의해서 자극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는 관점을 지칭한다(Jones, 1998). 심리학에서 이 주관주의에 대한 관심은 뿌리가 깊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물론 지각 및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Bartlett(1932)은 도식이란 지식체계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상황에

서 촉발된 도식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상황인식이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다 최근에는 각본(Abelson, 1981)이 제시되어 잘 정의된 역할과 행위가 촉발된 각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유명한 실험(Bruner & Goodman, 1947)에서 Bruner 등은 지각자의 동기에 따라 똑같은 대상의 지각이 다름을 보여 소위 'New Look' 운동을 촉발시켰다. Bruner는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 자극을 판단하고 지각하는 인지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대에 앞서 설파하였다(Jones, 1998). 상징적 상호주의자(Mead, 1934)들은 상황의 규정이 교류과정에서 '협상'되어지는 과정을 지적하였으며, Moscovici(1984)는 대상에 대한 표상이 집단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공유되고 있음을 보였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도 각기의 단순한 자극이 촉발하는 인지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대사회심리학의 수많은 연구들이 던져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한 Ross와 Nisbett(1991, pp. 59-89)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객관적인 상황자극을 대하여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나름대로 구성하는 인식(construals)을 바탕으로 반응을 하므로 사람마다 구성체와 반응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 즉 주관적인 상황의 구성에 반응하는 것을 사회심리학이 보여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극의 주관성 인식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심리학 특히 실험사회심리학에서 '자극'이란 개념은 '개념'적으로 동시에 '조작'적으로 부적절하게 운용되어왔다. 우선, 실험상황에서의 자극이 사회적 생활 상황에서의 자극이던 아니던 간에 어쨌든 '사람 밖에서 가하거나 주어진 것'이 자극이라고 불리워지기 위해서는 자극에 노출된 당사자인 사람이 그 '가하거나 주어진 것'에 의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야 곧 '주어진 것이나 가해진 것'을 자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자극을 받은 사람이 그 자극에 의해 심리적인 영향을 실제로 받느냐 또는 받지 않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그 자극이 과연 연구자가 조작하거나 보고자 했던 즉 '개념화된 바

로의 자극'인가 아니면 '개념화한 것과 다른 자극인가'의 문제는 '그 자극 자체가 갖는 객관적 질의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 자극의 속성과 그 자극을 접하는 사람의 속성이 복합된 '경험'의 형태로 구성 또는 출현(emergence)할 때 '밖에서 가하거나 주어진 그 자극'은 자극이라는 개념 규정에 합당한 자극이 되며, 동시에 구성 또는 출현된 경험의 형태나 내용이 연구자가 규정한 성질의 자극 경험(다른 경험이 아닌)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자극은 제대로 가해지거나 주어진 자극이 된다.

그 동안 심리학에서 관심을 두거나 사용해왔던 자극들은 그 자극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해석이 가능하거나(객관주의) 또는 개인 내적으로 항상성 있는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며(주관주의), 따라서 개인의 내적 생활사 속에서 체험해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자극에 대한 경험-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곧 현재형으로 주어진 자극의 '자극적 성격'은 그러한 자극과 관련된 과거의 직·간접적 경험에 밀착되어 기능적·의미적으로 규정된다. 즉 자극의 성격은 그 자극에 노출된 개인의 내적 경험-역사성에 의해 규정된다. 이는 곧 사람 밖에서 가하거나 주어진 자극을 그 자극을 받는 사람과는 독립된 '객관적 자극'으로 규정해왔던 지금까지의 자극에 대한 개념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극의 성격 즉 '이것은 무슨 자극이다'라는 것은 가하거나 주어진 자극의 객관적 속성 그 자체로 결

정될 수 있다는 사회심리학에서의 목시적 전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극의 성격은 자극 자체의 독립적 소여나 자극을 받는 사람의 심리적 소여에 의해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자체와 그 자극과 관련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는 심리적 소여가 맞부딪혀 생기는 관계맺음이라는 경험의 질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심리학 실험에서는 자극이 피험자에 의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등한시한 상태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왔느냐'의 가시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이 주어진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며 경험한다거나 그러한 자극과 관련된 경험을 어떤 말로 표현한다거나, 그러한 자극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떤 경험-역사를 가져왔다가 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반응은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문제삼지도 않았다.²⁾ 사회심리학자들은 피험자들이 자신들이 처치한 자극이 어떤 자극인가를 당사자인 피험자들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자처해왔다. 이 점에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스스로 객관성의 오류를 범해온 셈이다(Ross & Nisbett, 1991). 이들이 추구하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피험자에게 준 자극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피험자 자신들의 해석과 경험에 대한 보고를 통해 피험자들로부

2) 동조현상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Solomon Asch(1940)도 상황에 따른 구성념의 차이가 동조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oss & Nisbett, 1991, p. 70). 즉 선분맞추기 실험에서 거짓 대답을 하는 동료 피험자의 반응을 접하면서 실제피험자는 평가과제가 변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두집단의 대학생들에게 여러 직업에 대하여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상대적 평가를 하게 하였다. 정치가를 평가하기전에 한집단에게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정치가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고 알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정치가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같은 다른사람들의 평가를 알려 준 것이 평가자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설명과정에서 평가자들과 면담을 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정치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들이 이전의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압력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정치가를 높게 평했다는 조건에서 응답자들은 재퍼슨이나 루즈벨트 같은 훌륭한 정치가를 염두에 두었으며, 다른 조건에서는 정상배를 염두에 두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즉 동료들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일관된 평가가 평가대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심리학 교재 어디에나 나오는 초두효과, 중심특질의 영향도 모두 이러한 정보들이 구성념을 바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즉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틀이 다르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후속되는 정보들이 해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터 직접 들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무의미철자(Ebbinghaus)를 이용하거나 쥐 또는 비둘기 같은 동물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주관적 해석의 차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치검증(manipulation check)이라는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극을 처치한 후에 자극이 의도한 바대로 작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궁여지책의 성격이다. 흔히들이 체크를 통해서 자극이 의도된 바대로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한 피험자를 분석에서 배제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와 산출에 초연한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극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위는 그 자체로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미흡하다. 공격성이나 성희롱의 경우에서처럼 그러한 행위의 본질적 성격은 당사자들의 의도성이나 동기와 같은 마음 상태에 대한 자기 경험과 이에 대한 자기 보고를 통해서만 밝혀진다. 물론 성희롱의 경우와 같이 희롱 작위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보고를 하기도 하나 성희롱의 본질적 성격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빼놓고 정의될 수 없다(최상진, 김기범, 1999).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는 목적이나 동기 또는 이유 등이 있다(Habermas, 1984). 즉 해석이 불가능한 행동은 행위자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자기 내적 해석이나 설명을 거의 습관적으로 한다.

실험상황에서 주어진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질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 반응과 관련해서 피험자들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와 생각이 그 행동반응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유와 생각을 행동에 첨부해야 그 반응은 실험자가 생각한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의 이유와 생각이 빠진 행위반응 자

체는 반응이 아니라 동작(movement)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본래 기대했거나 측정하고자 했던 성격의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반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사자인 피험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반응과 관계된 해석, 의미, 이유, 배경 등을 들어보아야 한다.

이러한 반응을 해석하고 표출하는 방식도 개인의 경험-역사에 의해 구성되고 출현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극의 경험 방식이 그러한 경우와 같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면 한 개인의 반응이 상대에게는 자극이 되며 동시에 이와 연계되어 일어나는 상대의 반응은 그 개인에게 다시 자극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자극이나 반응이나의 문제는 어느 쪽에서 보았느냐의 문제이며, 똑같은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극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과 반응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동일한 과정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자극행동이건 반응행동이건)을 해석하는 과정과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은 동일한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심리학에서 타인의 행동을 포함한 자극에 대한 당사자의 해석과 경험양식은 자극의 조작과 반응의 측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해석과 경험이 곧 자극이며 반응인 것이다.

주어진 자극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경험은 그러한 자극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역사에 기초하여(anchoring 혹은 framing) 구성되고 출현된다. 따라서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른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절대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항상 상대적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판단의 상대성 기준으로 적용 효과, 틀효과, 과거경험의 효과 등을 들 수 있다(Ross & Nisbett, 1991, pp. 62-65). 점심시간에 먹은 된장찌개는 최근에 먹은 된장찌개와 비교되어 맛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주어진 자극이 과거의 생활사적 경험자극과 다르고 특수할수록 새로운

질의 해석과 경험이 추가되고 동시에 과거의 생활 사적 경험의 틀이 정세화, 확대화 또는 변형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정 자극에 대한 개인의 생활사적 경험은 보통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및 사회의 역사-문화적 생활과정 속에서 구성되고 공유된다. 역사와 문화는 자극 또는 행위의 의미는 물론 기능을 규정하는 구조(鑄造)틀이자 동시에 발현양상 그 자체이다. 따라서 동시대, 동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공구성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구성세계에 대한 재구성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새로운 구성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간다. 특정의 집단사람들이 공유하는 인식체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구명하고 그 작용과정과 영향력을 구명하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구성이 대상(자극)과 인간의 관계맺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왔다.

보편성의 문제

심리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많은 원리와 현상들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맺음의 다양한 양상 중에 어떠한 부분을 다루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대상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맺음을 유지하고 있다(최봉영, 1999). 이 관계맺음이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생물학적인 속성이 동일한 유기체들에서 관계맺음의 작용원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신경세포수준에서 정보의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색깔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지 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는 생물심리학과 감각심리학 분야의 발견들은 대부분의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발견들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화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

어, 색깔을 파악하는 생물학적 기제는 문화보편적이지만, 적록색 색맹의 출현빈도는 농경민족에서 높게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Post, 1962). 또 술을 해독하는 효소는 간에서 분비되는데, 이는 문화보편적이지만, 이 효소의 분비량이 인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동양인들은 적고 서양인들은 많아 취한 행위에 대한 허용도가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관계맺음의 성격이 생물학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지각과 생각의 수준 즉 문화적 활동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보편성의 문제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검증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중요한 사회행동과 그 과정은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사람들은 문화에 상관없이 공통의 개념들을 가진다고 본다. 사회문화적 수준에서의 보편성은 전면적으로 인정될 것도 아니고 부인될 것도 아니다. 다만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성의 문제는 현상과 개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우선 현상적 측면에서 보편성의 문제는 그 현상과 원리에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은 문화비교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서구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다양한 심리현상과 원리를 제3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보편성(etic)과 특수성(emic)의 발견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흔히 문화보편성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문화권에서 발견된 개념과 현상을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지를 본다. 이런 연구에서 상이한 문화권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문화보편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문화비교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부과된 보편성' imposed etic(혹은 pseudo etic)이다(Triandis, Malpass, & Davidson, 1972, p. 6).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난 보편성은 피상적인 것일 뿐 그 현상의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비교심리학자들은 변수의 측정과 변수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문화권에서 동일한 변수를 다루어 문화간의 차이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개념의 동질성, 그 번역의 타당성, 응답자들의 대등성, 절차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도, 개념이나 행위가 문화권마다 상이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비교성(comparability)을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문화특수적인 현상을 보편적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항상 까다롭게 된다. 예를 들어, 온정주의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것은 부패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친인척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한다(Przeworski & Teune, 1970). 이 같은 논의가 보편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소위 '전통적' 주제를 갖고 연구하는 것은 부과된 etic 유형의 연구이므로, 보편성을 발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음악에 비유컨대 화성을 중시하는 서양의 음악에 길들여진 귀를 지닌 사람들은 모든 음악을 감상 평가함에 있어서 서양음악의 잣대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러한 귀에 음색을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소리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음악의 보편성을 알려면 국악과 양악 모두를 음악의 범주에 놓고 보아야 보편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념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들이 어느 문화권이건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들은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심리학의 제반 용어들이 문화적 구성물(cultural constituents)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캐나다의 심리학 사가인 Danziger(1997, pp. 181-193)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류(natural kinds)의 용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 반영, 표상에 대한 합의적 지칭이다. 이 용어

가 지칭하는 대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짓느냐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마치 은행나무를 어느 날 사람들이 백양나무로 부르기로 결정했다해도 은행나무는 그 속성이 그대로 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류(human kinds)의 용어는 사람들이 대상을 이름짓기에 따라 대상의 속성이 변하게 된다. 즉 60세 성인을 모든 사람이 노인이라고 부르게 되면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노인에 필적하는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것처럼 대상의 속성이 바뀐다. 심리학의 거의 모든 개념과 용어들이 이 후자에 속하는 것들이다. 사람들의 인지구조에 자리잡고 있는 범주를 수반하는 개념(category implied concepts)들은 대상을 구분하는 규칙의 속성을 지닌다. Bruner는 '지각의 준비성'이란 글에서 지각이란 의사결정의 과정을 포함하며, 접수된 정보를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된 범주들의 의미체계에 위치시키는 작업이라 제시하고 있다. 지능, 내외귀인, 성취동기, 우울증 등등 거의 모든 심리학의 개념들은 범주화를 수반하고 이 범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심리학의 용어들은 아울러 대상을 어떻게 보겠다는 실행성(practice)을 지닌 정치적 용어임을 Danziger(1997)는 일깨우고 있다. 한가지 예로 지능을 들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란 용어가 철학과 심리학사전에 등장한 것은 20세기초가 지나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지성(intellect)이란 용어를 써왔는데, 두 가지 개념은 의미심장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지성은 이성의 개념과 유사하며 철학자들이 인간의 독특성을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다루는 개념이다. 지성은 질적인 개념이지 양적인 개념이 아니며, 오늘날도 인문학의 용어로 다루어진다. 반면에 지능은 생물학에서 출현한 개념이다. 즉 Darwin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내어 인간과 동물의 질적인 차이를 진화의 차이로 보는 혁명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신력(mental powers)이라는 일반용어를 양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George Romanes이라는 생물학자가 '동물의 지

능(Animal Intelligence)'이라는 저술을 1882년에 냈는데, 그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던 이성(reason)을 대체하기 위하여 등급체계를 지니고 있는 지능을 제시한 것이다. 생물학에서 출현한 지능은 환경에의 적응능력으로서 생물학적이며 심리학적인 변화를 다루는 개념이었다. 모든 동물은 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지능의 우열정도가 환경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가름하는 것이다. Darwin과 Romanes은 동물계에서 종들의 진화적 서열을 매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간세계에서 야만인과 문명인, 천재와 백치를 구분하는 데도 지능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동물계의 진화에 적용되던 이 개념이 Galton의 우생학 전통에서 사람에게 적용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Galton의 후계자인 Pearson과 Spearman은 이 지능의 양화와 개념화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에서의 이러한 전개와 별도로 20세기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Binet가 지능검사를 만들었으며, 서양에서 개인과 개인차이를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와 맞물려, 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³⁾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중의 하나인 지능이 본질적으로 서열 매김을 하는 개념이므로, 사람을 지능의 측면에서 서열화(정량적 분석)하는 불가피성을 지닌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지능이 정신능력의 한가지 측면만을 반영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정서지능, 창의성 등의 개념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심리학의 개념들이 부침하는 역사-문화적 성격을 지닌 구성물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학문은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체계들의 집합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들 개념이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가치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대 문화에 따라 변모한다는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성의 문제

현대사회심리학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Kurt Lewin(1947)은 일찍이 인간의 행동은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메타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환경이라는 말을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해석해 보면 사회로 치환할 수 있다. Lewin은 사회를 삶의 공간(life space)으로 보고, 이 공간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힘들을 상정하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과정과 기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비록 그가 다양한 힘들에는 사회체제, 문화, 규범 등을 포함시켰지만, 그는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교류를 특히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소집단 내의 대면교류가 다양한 사회적 힘들을 개인에게 매개시키고 영향주는(transmit)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Festinger, 1980). 그는 특히 소집단의 교류과정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원리를 밝히는 것이 사회심리학의 과제라고 보았다. 그가 개인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차에 주목하는 경우에 숨겨진 과정을 발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의 학생이었던 Festinger(1980)는 Lewin을 숭배하면서, 낙하하는 물체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다. 즉 물체의 낙하법칙을 알려면 낙하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작용기체에 관심을 지녀야 하며, 이 기체가 밝혀진 이후에 낙하물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는 것이 연구의 순서라는 것이다. 더욱이 Festinger는 "현상이 복잡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그 작용원리가 복잡해서라기 보다는 내 스스로가 잘못된 질문을 하였거나 이론적인 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⁴⁾(p. 246). 이같은 Lewin학파의 접근이 기라성같은 그의 제자와 후학들(Festinger, Cartwright, Zander, French, Kelley, Deutsch, Schachter,

3) Spearman은 지능의 이론발전과 검사의 개발에 크게 기여한 심리학자로 여겨진다. 그는 1923년에 심리학자들이 지능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는 글을 남겼다(Danziger, 1997, p. 29).

4) "The way I have always thought about it is that if the empirical world looks complicated, if people seem to react in bewilderingly different ways to similar forces, and if I cannot see the operation of universal underlying dynamics- then that

Beck, Aronson, Nisbett, Singer, Zajonc, Cohen, Brehm, Bem 등)에게 대물림되면서 오늘날의 주류 사회심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성립시켰다.

사회심리학의 특성을 다양한 면에서 요약할 수 있겠지만, 필자들은 그 학문이 다루는 주제가 지닌 특성면에서 파악했을 때, 사회심리학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관한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고 본다. 최근 (Gilbert, Fiske, & Lindzey, 1998)에 발간된 ‘사회심리학 핸드북’에 나타난 37개의 장에서, 역사와 방법론을 다루는 것이 5개, 개인의 심리와 행위를 다루는 것이 11개, 타인과의 교류를 다루는 것이 11개, 사회와 문화를 다루는 것이 4개이고, 기타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심리학의 주제들이 이같이 개인과 대인교류에 맞추어지고, 연구들이 실험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심리학의 위기 문제가 제기되어졌다. 1973년에 Gergen의 ‘역사학으로서의 사회심리학’이란 논문에서 사회심리학의 과학성문제를 제기하였고, 사회심리학 지식의 현실적 타당성, 윤리적 문제 등의 위기문제들이 잇달아 나타나며, 사회심리학의 패러다임 논쟁이 80년대 활발히 진행되었다(Rosnow, 1981).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심리학에서 사회는 어디갔느냐?”라는 물이다.

일반사람들이 사회를 이야기 할 때 사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그 성원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집합체로서의 의미(즉 society)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이 연구하고 있는 ‘사회’의 의미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우정, 공격, 이타행위, 사랑, 인상형성, 태도변화, 귀인, 리더쉽, 의사소통 등), 즉 interpersonal을 지칭하고 있다.⁵⁾

Lewin이 사회심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미 50년 전에 미국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의 관심을 제시하였지만, 그의 제자들은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는 개인의 인지, 대인관계에 몰두하여, 본의는 아니었지만 ‘사회적 진공(social vacuum)속의 사회심리학’을 형성한 것이다. 사회적 진공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society를 강조하는 의미의 사회심리학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사회’란 말은 그 속에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함께 공유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구성체’라는 내포가 들어 있다. 즉 역사-문화적 구성체가 사회의 본질이고, 사회심리학은 역사-문화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심리학은 이러한 ‘집합성(collectivity)’, ‘역사성’, ‘문화성’, ‘전통성’ 등은 다 증발시켜버린 체 심리적 상황(psychological situation)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상황에 따른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 by situation)’으로 완전히 경도되어 있다. 특히 인지혁명 이후 사회심리학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인간상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인지적 구두쇠로서 혼자 기능하는 개인(self-contained individual)의 모습이다. 정보처리적 관점이 지나치게 인지만을 강조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인의 동기와 정서를 통합하여 행동을 설명하는 접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Taylor, 1998; Zajonc, 1998). 그러나 이 같은 연구경향이 사회성을 회복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이들 변수는 개인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대뇌의 신뢰질의 작용(인지현상)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뇌의 다

is my fault, I have asked the wrong questions; I have, at the theoretical level, sliced the world up incorrectly. The underlying dynamics are there, and I have to find the theoretical apparatus that will enable me to reveal these uniformities.” (Festinger, 1980, p. 246)

5) 물론 사회(society)를 다루는 이론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의 연구는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지녔으며,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에서 집합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풍토가 다른 유럽의 사회심리학자들(Moscovici, 1984; Tajfel & Turner, 1979 등)에 의해 괄목할 만한 이론(사회정체감 이론)이 나왔다. 1980년대는 이 이론이 사회심리학의 연구에 확실한 획을 남겼다.

른 부위(시상하부 등)로 관심을 확대한 것일 뿐이다. 여전히 사회심리학은 비사회적 사회심리학(nonsocial social psychology) 또는 탈문화적·탈역사적 사회심리학으로 비판받고 있다.

실험사회심리학이 인간심리 형성변화의 역사-문화적 과정을 연구나 이론의 체계속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 사회심리학은 비사회적 사회심리학(nonsocial social psychology)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보면 상황자극 그것도 거의 자연과학 실험에서와 같은 단순한 자극을 잠깐 제시하거나 체험시키고 곧바로 그 효과를 측정하는 탈역사적, 탈문화적 실험을 기본 모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단순히 상황자극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점은 실험자극과 같이 극도로 단순화된 자극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반응은 역사-문화적 심리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역사-문화적 반응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극을 체험하는 사람 자체가 역사-문화적 구성체이며 역사-문화적 과정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로서 지난 40여 년간 연구되어진 동조현상을 들어보자. 이 현상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인 Asch(1952)의 선분맞추기 실험은 그동안 17개 국에서 133번 이상이나 복제되었다(변형된 실험 포함). 이들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결과(Bond & Smith, 1996) 미국내에서 동조율은 시대의 진행과 더불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동조율이 높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을 취합하므로써 역사-문화적 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만, 각기의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실험실 상황에서 이같은 변수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 까닭은 아마도 문화가 그 구성원 모두에게 균일한 영향을 주는 상수로 취급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마치 우리를 둘러

싸고 항상 존재하는 공기의 존재를 못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변수로 취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지니고, 나름의 색깔(문화)을 지녀 그 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받아 변모하는 특성을 지닌 사회와 성원의 심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모색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social constructionism, ethogenic approach, narrative psychology, discursive psychology, folk psychology, critical psychology 등)로 진행되었고, 이들이 공통의 색깔을 의식하고 치켜든 것이 문화심리학이라는 우산이다.⁶⁾ 문화심리학은 종래의 사회심리학과는 달리 문화를 심리의 주축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어 종래의 사회심리학이 범했던 ‘개인심리 중심적 사회심리학’의 기본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를 심리 속의 중심 개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사회심리학에서 고집했던 실험적 접근을 탈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적 접근만으로는 문화심리학적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문화심리학에서는 연구관심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나 집단 차원이 아닌 문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종래의 사회심리학에서의 환원적 미시 접근을 초월하여 사회과학적 거시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환원이나 개인화에서 오는 사회현상이나 문화현상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통심리학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문화심리학

현대심리학의 창안자인 Wundt(1916)에게 사회현상은 개인수준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성질이며,⁷⁾ 따

6) 문화심리학의 연구자들이 펴내고 있는 다양한 관련 연구물을 접하기 위하여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볼 수 있음 http://www.cudenver.edu/~mryder/itc_data/activity.html

라서 내성법이나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의 마음은 역사적 산물로 개인의 의식경험(Wundt가 연구하고 정의하던 구조주의 심리학의 탐구대상으로서 즉각적인 자극에 대한)의 연구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언어와 문화와 같은 집합적인 정신산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Farr, 1996, p. 26). 그래서 그는 생애 후반부를 인간사회를 이해하는 민족심리학(volkerpsychologie)의 탐구에 바쳤다. 그러나 Wundt의 심리학은 오늘날 실험심리학 분야에서만 이어져왔을 뿐 그의 민족심리학(현대적 의미로는 문화심리학)은 심리학에서 그 명맥이 끊겼다.⁷⁾ 그가 신화, 언어, 풍습, 역사적 유물, 민속, 관습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Wundt는 분명 인간의 심리가 역사·문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산물 속에 인간의 심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언어의 분석을 중요시했던 바, 그러한 생각 속에는 언어가 심리를 구성한다는 Wittgenstein(1975)의 심리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언어는 인간의 심리를 충실하게 담고 있는 역사성을 띤 의사소통매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심리학은 소위 전통심리학에서 금기사항으로 여겨져 왔던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오히려 이론적 거점으로 삼는다. 첫째는 마음을 심리학의 핵심 대상으로 끌어들이었으며, 둘째는 문화를 심리학의 중심부에 들여놓음으로써(전통심리학에서 문화는 주변부

에 두었음) 전통심리학의 핵심전제인 완성된 실체로서의 심리체(psychic unity)를 해체 내지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먼저 마음과 관련하여 전통심리학은 마음이 주관적 현상이므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지양하고, 객관적 행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전통심리학의 정신적, 방법론적 주류인 행동주의 심리학은 심리적 지향성을 갖는 마음을 추방하는 반심리주의(antimentalism)에서 출발하여 기계로서의 행동법칙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은 바로 행동주의가 버렸던 마음을 오히려 설명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관점을 반전시키고 있다. 마음을 배제한 심리학은 사람이 없는 심리학이며, 인간의 삶 그 자체, 예컨대 행복, 불행, 성공 등은 마음을 빼 놓을 때 존재할 수도 구성될 수도 없는 것이다. 문화심리학에서의 마음은 일반인이 살아가는데 관여되는 ‘삶의’, ‘살아있는’ 마음이며 동시에 심리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구성한 ‘일반인심리(folk psychology)’를 뜻한다.

1950년대에 행동주의에 대한 혁명으로 나타난 인지심리학도 그 본래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마음이었다. 즉 인지심리학은 생각하기(believing), 원하기(desiring), 의도하기(intending), 뜻 이해하기(grasping a meaning) 등과 같은 마음지향상태(intentional state), 상태로서의 마음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다시 끌어들이는데 목표를 두고 생겨났다. 그러나 그 발전의 방향과 궤적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컴퓨터 모델로 기울어져 ‘의미’보다는 ‘정보’, ‘의미의 구성’

7) Wundt의 이러한 비합원론적 생각은 그의 실험실을 방문한 프랑스의 Durkheim에게 이어져 사회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한편 동시대에 베를린에서 Dilthey(1833-1911)는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으로서 심리학의 기초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보는 대신에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맥락속에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비록 Dilthey는 심리학보다는 인문학의 길을 담은 사람으로 명성을 높였지만, 그 밑에서 공부한 G. H. Mead에게 이어지고, 상징적상호주의의 학풍으로 발전했고, 심리학에서는 Stumpf에게 영향을 주어 Gestalt 심리학으로 발전하였다(Farr, 1996, pp. 22-23).

8) Wundt가 심리학의 비조로서 인정받으면서도 그의 학문적 업적이 최초의 심리학실험실 개설외에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는, 그가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으로 고등정신과정을 연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부분의 연구를 자연과학이 아닌 정신과학으로 정립하려 노력하였으며, 그를 미국학계에 소개한 Titchener와 그의 제자 E. G. Boring 같은 이들이 모두 논리실증주의의 신봉사이었던 탓이라 여겨진다(Farr, 1997, pp. 34-35).

보다는 '정보의 처리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컴퓨터이론(computational theory)을 정보처리의 기저 메타포(root metaphor)로 삼았다(Bruner, 1990, pp. 1-10).

이러한 형태의 인지심리학에는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Bruner(1990)는 원래의 취지대로의 복귀를 지향한 역혁명(retro-revolu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지심리학의 창시에서 대부적인 Bruner는 이러한 인지혁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롭게 문화심리학을 구성하고, 인간의 의미(meaning)와 의미구성(meaning construction)의 본질과 문화적 形削(cultural shaping)과정을 문화심리학의 중앙에 위치시켰다. 이와 같은 문화심리학적 맥락에서 문화심리학 창시를 주도한 Vygotsky(1978), Harre(1986), 그리고 Shweder(1991) 등도 인간의 마음을 기본 축으로 놓고 그러한 마음이 사회-문화 및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문화심리학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문화심리학에서의 마음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문화심리학 혁명의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라기보다는 문화적 구성체로 파악하고, 문화를 인간의 마음형성을 포함한 인간성 구성 및 실현의 본질적 조건이며 필수적인 요소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발달을 인간 내적 잠재성의 실현으로 보며, 여기서 문화는 잠재성의 실현에 대한 제약조건 또는 촉진조건으로 파악하지만,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의 습득과 이용이 인간발달의 근간이 되며, 더 나아가 인간을 생물학적 한계조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조건은 다만 제약 또는 촉진조건에 불과하다. 인간을 자동차에 비유하여 그 차이를 설명한다면, 차가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 있기 때문(생물학적 입장)이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할 목적이 있으므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다(문화심리학적 입장). 엔진이 없는 차라면 운전하려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Bruner, 1990).

문화심리학에서 문화와 마음 또는 심리현상간의 관계는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내적, 질적으로는 공존단위(common unity)이며, 따라서 마음속에 문화가 있고, 문화 속에 마음이 있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여기서 문화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가지며 따라서 문화와 마음은 변증법적으로 상호의 구축 및 변형에 기여한다. 문화와 마음간의 매개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언어, 삶의 활동(practical activity), 일반인의 상식심리(folk psychology), 사회제도 및 물적구조 등이 중요한 매개개념 및 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체계들은 개인심리적 과정보다는 집합적, 사회적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성을 갖는다.

현대적 의미의 문화심리학은 서로 다른 학문배경과 이론적 전통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 서로 독립적 맥락에서 거의 공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는 점에서 우연의 만남과 같은 인상을 준다. 심리학분야에서는 Gergen(1985)에 의한 역사-문화적 구성주의 심리학이 제안되고, Bruner(1990)는 문화심리학의 핵심개념을 의미의 사회적 구성으로 삼고, 심리와 문화의 연계고리를 일반인심리학(folk psychology)으로 설정하였다. 즉 인간의 심리에 가장 중요한 현상과 개념은 의미이며, 문화는 의미의 형성과 변형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가 인간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매개는 일반인심리학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인지인류학의 분야에서는 Shweder(1991)가 '문화가 개입되지 않은 사고는 없다'라는 명제를 인도(India)라는 구체적 문화권 속에서 예증해 보임으로써 문화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영향 또는 제약 변수라기 보다는 인간 심리의 핵심 구성물(constituents of psychology)이며 사고 및 경험의 문법임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문화심리학을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관행이 인간의 심리를 조절하고 표현하며, 변형시키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문화와 사회적 구조가 다른 집단이나 사회에서의 마음, 작위, 정서 등은 다양할 수

있다. 문화심리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는 문화심리학이 일반심리학, 비교문화심리학, 심리인류학 등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 있다.

Vygotsky를 필두로 한 구 소련의 역사문화주의 심리학과와 그의 후계자들, 예컨대 Luria, Leontiev, Cole, Wertsch, Ratner 등은 Vygotsky의 역사-문화 중심적 발달심리학을 문화심리학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들의 Vygotsky에 대한 해석과 문화심리학에서 Vygotsky의 어떤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Wertsch(1985)는 언어와 매개(mediation)의 개념을 강조한데 반해, Leontiev(1981)와 Ratner(1997)는 동기와 실재적 삶의 활동에 더 큰 강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Vygotsky의 이론체계의 잉태배경인 Marx의 유물론적-역사주의적 시각, 그리고 마음보다는 실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철저한 구성주의적 시각(Gergen, 1994)이나 심리주의(mentalism)에 기운 Moscovici(1984), Shweder(1991), Harre(1994) 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유된 문화적 이해와 개념을 강조하는 Shweder(1991)나, 담론을 통한 심리의 형성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Harre(1994), 더 나아가 담론을 앞의 본질로 보는 Gergen(1994), 집단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표상을 심리학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Moscovici(1984) 등의 접근(최상진, 1990)을 ‘인지중심적 문화심리학’이라 한다면, 이와는 달리 Vygotsky 일파는 사회-역사적 구체현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삶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중심적 문화심리학’이라 볼 수 있다(최상진·이장주, 1998).

인지중심적 문화심리학은 문화적 상징과 사회적

현실이 어떻게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과정을 통해 세상은 물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설명방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활동중심적 문화심리학은 문화와 사회에 대한 해석보다는 실제로, 누가, 어떤 사회적 구조상황 속에서 무슨 동기로 어떤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무슨 행동을 하느냐의 의도적 활동과정을 통해 의식이 ‘구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 점에서 전자는 형성론적이라 한다면, 후자는 생성론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전통심리학의 창시자인 Wundt의 민족심리학(volkerpsychologie)을 문화심리학의 초기 거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Wundt가 연구의 대상과 방법으로 제시한 언어, 관습, 신화, 상징, 문화적 유물 등에 대한 분석이 문화심리학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문화심리학을 새롭게 만든다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민족심리학을 확장 내지 정교화시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대변한다. Vygotsky 전통의 문화심리학자인 Cole(1996)은 문화심리학의 발전과정을 맥락화하여, Wundt에서 Vygotsky로 다시 Luria와 Leontiev로 연결시켜 활동중심적 문화심리학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심리학은 ‘문화심리학이 무엇이나’의 문제보다는 ‘기존 전통심리학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은 그 자체로 문화심리학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전개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문화심리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심리학인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한 공유된 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각기 자신의 시각에서 문화심리학을 구축해 나아가는 단계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⁹⁾ 위에서 언급된 문화심리학의 창시자들은

9) 문화심리학의 학문적 주요 특성을 Cole(1996)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문화심리학은 구체적 문화맥락 속에서의 매개적 행위(mediated action)를 강조한다. 2) 문화심리학은 역사적, 개체발생적, 미시발생적 분석 등을 활용한 발생론적 방법(genetic method)을 추구한다. 3) 문화심리학은 분석의 대상을 일상적인 사건에 둔다. 4) 문화심리학에서 마음은 집단상황에서 사람들간에 매개된 활동을 통해 생겨나고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마음은 공구성(co-constructed)되고 공유적(distributed)된다. 5) 문화심리학에서 개인은 개체의 자기발달측면에서 볼 때 능동적 작위자가 되며, 사회적 상황맥락에서 볼 때 자의

지금도 문화심리학의 이론적 인식론(epistemology)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며, 따라서 문화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한 현상분석이나 자료는 매우 적거나 그 질적 수준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세계심리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심리학의 성격을 필자들의 입장에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심리학은 기존의 서구심리학 특히 미국심리학 중심의 보편심리학(universal psychology) 구성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하였다. 서구의 전통심리학자들은 반드시 비교문화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이라는 명칭이나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이론을 비서구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입수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보편적 이론으로 확인하는데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에 부분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들은 서구에서 교육받은 비서구권 심리학자들이다. 이들은 서구교육을 통해 습득한 자신들의 서구심리학적 지식체계와 방법론을 범문화적 또는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하여 자기 문화권 사람들의 심리연구와 심리구성에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통해 적용해오으로써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자국인 이해의 안경(lens)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의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서구이론의 보편성 가정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즉 서구의 이론에 대한 비서구문화권에서의 검증은 서구이론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서구학자를 중심으로 한 비교문화심리학이 탄생되었다. 서구에서 교육받은 비서구권 학자들이 비교문화심리학에 관심을 두면서 이들

은 서구의 비교문화심리학자들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비서구문화권 사람들의 문화특수적 심리현상을 찾아내는데 기여하게 되면서 서구심리학의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은 한편 서구의 주류심리학의 기본 정신인 보편이론을 정당화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론에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이론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나 문화에 따른 해석의 수정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즉 비교문화심리학은 보편성 이론추구의 기본 정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문화에 따른 심리적 특수현상을 아우르려는 개량주의적 범문화심리학의 구성을 추구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량주의적 입장과 서구문화중심적 보편심리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문화에 따라 심리학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개혁주의적 입장의 심리학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의 심리학은 그 발생전통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 바, 하나는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이며 다른 하나는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이다. 그러나 이 두 심리학은 비교문화심리학의 보편이론 추구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문화를 심리학의 선행변수 또는 외생변수가 아닌 구성요소 또는 내재변수로 전제하고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두 심리학을 구분하는 일 자체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이며 공허한 노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Greenfield, 1999; Shweder, 1999).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심리학의 성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토착심리학의 특징적 성격을 포괄하여 다루기로 한다. 문화심리학이 비교문화심리학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제안되고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심리학의 특성을 밝히는 데는 비교문화심리학과

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님을 가정한다. 6) 문화심리학은 인과관계, 자극-반응관계, 설명과학(explanatory science)보다는 활동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본질을 선호-우선하며, 설명보다는 해석에 초점을 둔다. 7) 문화심리학은 사회과학, 생물과학은 물론 인문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의 비교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문화심리학의 특성을 비교문화심리학과 대비를 통해 논하기로 한다.

첫째,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를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마음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여 심리학 이론 자체내에 문화적 개념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용해하여 이론구성요소로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한다(Bruner, 1993; Jahoda, 1992). 그러나 비교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를 심리밖에 존재하는 외생변수로 보고 문화가 심리의 구성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모델을 기본적 가정으로 삼고 있다(Berry, 1976; Lonner, 1997). 이러한 시각은 두 가지 접근에서 문화를 공통적으로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심리이론의 구성은 물론 방법론적 측면과 이론의 적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둘째, 문화심리학에서 문화는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을 알고 이해하고 구성하는 방식(Bruner, 1993, p. 516)이며 따라서 문화는 인간이 행하는 사고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이유(good reasons)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문화심리학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왜 또는 무슨 이유나 무슨 목적 또는 동기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를 문화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떠나며 밝히고 설명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비교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적 설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러한 설명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범문화적 보편성심리기제를 찾아내고 이를 자연과학적 연구방식에 따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비교문화심리학연구에서는 서구 중심의 탈문화적 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한 연구를 강조한다면 전자의 문화심리학에서는 일반인의 문화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적 의사소통 형태에 충실한 방법론을 고안하여 활용하는 문화중심적 방법론을 강조한다(Greenfield, 1999).

셋째,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적 마음'의 내용과 사고의 과정을 문화적 삶의 맥락속에서 있는 그대

로 작용하는 바대로 떠나며 이를 체계화하고 해석하는 즉 마음의 과정에 대한 체계화와 이론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비교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적 맥락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과정보다는 문화적 탈맥락속에서 추상화된 문화 또는 문화심리의 색인화(index화) 및 package화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Greenfield, 1999).

끝으로,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주관적 설명, 해석, 귀결, 판단, 평가 등과 같은 일반인의 공유적 또는 공구성적 주관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떠나서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나 비교문화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공유적 또는 공구성적 주관적 세계를 추상화하여 이를 객관적인 심리세계로 재구성하는 자연과학적 객관주의를 연구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

최상진(1998, 1997)은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을 크게 당사자 심리학과 제 3자 심리학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접근의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한 바 있다. 즉 개인주의와 제 3자적 시각을 문화적 틀로 발전시켜온 서구의 문화권에서는 제 3자적 즉 객관적 심리학이 접합한 반면 관계주의와 심정(心情)과 같은 당사자적 경험을 문화적 틀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의 심리적 틀속에서는 당사자심리학이 효과적임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틀이나 문화적 삶의 차이는 반드시 배타적 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서구문화권에서도 부부관계나 친밀 인간관계에서는 당사자적 심리가 제 3자적 심리보다 더욱 우월하게 발전되고 작동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권에서도 일반적 사회관계나 사회적 행동에서는 제 3자적 심리틀이 당사자적 심리틀보다 우월한 또는 선행적 심리적 작용틀로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개인내에서도 당사자적 심리틀과 제 3자적 심리틀이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길항적(拮抗的)으로 또는 순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틀의 심리작용틀은 문화적 또는 집단차원에서 또는 개인내적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면서 상황에 따

라 다르게 작동되는 인간의 공유적 심리틀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문화심리학이 어떤 meta이론적 가정과 틀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를 비교문화심리학과 대치적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심리학적 연구와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가 반드시 대치적 입장에 있으며 물과 불처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체면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연구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루어져 체면에 대한 문화내적 개념화가 어느 수준의 정밀화수준에 이르면 다음 단계로 이 세 나라의 체면을 비교문화심리적 관점에서의 추상화를 통해 이 세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교문화심리학적 개념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특수민족에 국한된 문화심리학은 특수문화권, 예컨대 유교문화권의 보편심리학(universal psychology)으로 발전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와 같은 비교문화심리학적 거대이론이나 거대시각이 각 문화권속에서 보다 정밀화되고 문화적으로 밀착된 문화심리학 이론으로 재구성될 때 비교문화심리학 이론은 문화심리학 이론으로 정교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

문화심리학의 궁극적 이상은 바로 앞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문화특수적 이론에서 문화권이론으로, 당사자 심리학적 이론에서 제 3자 심리학 이론으로, 주관적 문화공유심리학에서 객관적 통(通)문화심리학으로, 맥락중심적 심리학에서 탈맥락적 심리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문화심리학, 예컨대 한국인 문화심리학 또는 일본인 문화심리학이 미쳐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를 서구인들로부터 타의적으로 강요받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수행하게 될 때, 비교문화심리학 연구의 질은 조잡해지고 더욱 큰 문제점은 문화심리학이 미쳐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도상에 있는 비서구문화권에서의 문화심리학적 이론과 연구를 서구심리학(보다 정확하게는 서구의 문화심리학)적 틀에 꿰어 맞추는 심리학의 문화적 오

염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구 이론 검증연구나 서구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 1) 서구의 이론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방향의 동기가 목시적으로 관여되었다는 점과, 2) 서구의 이론에서 일탈되는 문화특수적 결과가 나타날 때 연구에 참여한 한국학자가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한국인을 알 수 있다'라는 암묵적 신념에 근거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결과해석'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의 두 번째 과오는 기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당사자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문화심리에 대한 연구나 이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과된 자료에 대해 문화 또는 문화심리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궁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문화심리학은 문화심리학의 발전은 물론 비교문화심리학 더욱 넓게는 일반심리학의 이론적 정교화와 지평의 확대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방면의 현실 과제이다.

맺음말: 문화심리학적 시각에서의 한국인심리학

국내에서는 그 동안 일상의 언어와 대화과정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동시에 한국의 문화론자나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론자들에 의해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지적되어온 심리적인 개념들을 일반인심리학의 입장에서 떠나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다(최상진, 1997; 1994; 1991; 최상진·김기범, 1999; 1998; 최상진·박수현, 1990; 최상진·유승엽, 1996, 1994, 1992; Choi, 1998; 1994; 1991; Choi & Choi, 1994; 1991; Choi & Kim, 1999; Choi, Kim, & Kim, 1999 등). 연구자들은 '우리', '한', '정'에 대한 사회표상적 수준의 인지중심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심리적 개념에 자동적으로

부착된 사회적 현상과 활동들에 대한 분석으로 관심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관심의 확대는 불가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보면, 일반인심리학의 대상개념이나 언어는 본질적으로 실재적인 삶의 활동과 직결되어 구체적인 동기, 행동, 맥락성, 감정, 단서, 인식 및 해석체계 등을 그 개념 속에 내재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제도와 인간관계 속에 뿌리적 연계성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심리개념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활동중심적 문화심리학으로 연계되고 불가피하게 그러한 개념을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예컨대, 체면의 분석(최상진, 김기범, 1998; Choi & Kim, 1999)에서 체면의 의미론적, 표상적 분석에서 시작하여 유교와 형식주의라는 역사 맥락적 해석으로, 다시 체면을 차리고, 세우는 동기에서 출발하여 체면을 차리거나 잃었을 때 얻어지는 실재적 결과와, 체면을 차려야 되거나 안 차려도 되는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면서, 실천적인 체면행위와 체면단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상진 등(1998)은 한국인의 '정'과 '한' 그리고 '우리성'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심리적 연계와 삶의 실천적 행위과정에서 '심정'이라는 매개를 통해 변환(transformation)되어 지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앞에서 논의된 문화심리학의 이론적 접근모형과 방법론적 요구조건에 그대로 부합된다는 점에서 문화심리학적 분석의 한국적 적용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Ratner를 포함한 Vygotsky 일파들이 말하는 바대로 '구조화된 사회맥락 속에서 삶의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체면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라는 개념을 한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 개념을 문화심리학적 차원에서 구성하고 이를 비교해본 결과 동일한 언어나 현상이 문화권에 따라 그 심리적 구성과 실천의 방법 및 동기, 행위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다른(universality without uniformity)' 것을 보였다(최상진·박수현, 1990; 최상진·유승엽, 1994; Choi & Choi, 1994).

이러한 연구는 Shweder(1991)나 Ratner(1997)가 말하는 동일개념에 대한 심리적 구성과 기능의 문화적 다양성을 실증적으로 보인 인지중심적 문화심리학 연구로 볼 수 있다. 최상진 등(1995)은 한국인의 '火'와 서양의 'anger'가 그 심리적 구성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는 Ratner(1997) 등이 정서의 문화적 구성, 즉 슬픔, 외고집, 분노 등과 같은 정서가 문화에 따라 해석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심리적 구성에서도 다르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문화심리학은 어떤 방향으로 지향되고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눈앞의 과제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심리학은 연구를 통해 얻어진 내용물을 가지고 구성된 실물성이론(substantiated theory)의 단계라기 보다는 실물성이론이 구축되기 이전의 인식론적 구성(epistemological construction)의 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론적 구성은 앞으로 축적되는 연구결과와 실물성이론의 기초 위에서 재구성되고 정교화되며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한국의 심리학은 그 동안의 서구심리학 종속에서 벗어나 새롭게 우리의 심리학을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문화심리학이 마음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한국인이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마음을 중시하며(최상진, 1997),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구성이 제3자 심리적 모형보다는 당사자심리적 모형에 기울어져 있음(최상진, 1997; Choi, 1998)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문화심리학적 자원이 다른 문화권에 비교해 풍부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일반인심리학의 접근을 취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과 더불어 위로로부터 아래로의 방식(한규석, 1991), 즉 한국인의 전통사상인 유교적 사고의 근원을 통한 한국인 심리의 탐색(예를 들면, 조공호, 1990; 이수원, 1997; 한덕웅, 1994 등)이 병행되고 결합될 때, 더욱 풍부한 한국인심리학의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Kitayama와 Markus(1994)는 정서가 더불어 자기(self) 및 성격까지도 문화적 구성에 따른 특성을 지

니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또한 Markus & Kitayama, 1991). 이는 심리학의 모든 개념들이 문화적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인 심리학의 구성이 모두 문화적 특수성을 보고자 하는 연구로 여기고, 전통적 심리학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을 보편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정서가 심리학자들에게 상당히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 주제들의 연구가 또한 미국(서구) 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특수성의 연구(즉 미국의 토착심리학)인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심리학의 발달이 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제3세계의 심리학자들의 업적이 현재로서는 이에 필적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Berry et al. 1992, p. 10). 이점에서 보편성은 강요되어진 것일 뿐이다.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용어를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루게 되면 그러한 잣대에 의해 우리 한국인을 보게되며, 그러한 연구의 누적은 한국인의 이해와는 필연적인 괴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자생적인 개념을 발굴하고 고유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흥미거리나 해 볼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 꼭 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앞으로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심리는 물론 전통심리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과 재구성의 작업을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결과물들을 국제 심리학계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심리학자는 이론의 생산가로서 국제심리학계에서 대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이제 한국의 심리학자가 할 일은 이들 자원을 발굴, 정리하며, 심리학의 이론적 체계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화심리학의 비교연구라는 틀 속에서 우리의 문화심리가 외국에 보급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심리학 정립이라는 목표가 구현되며, 심리학 이론의 생산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수원 (1997). 중용의 심리학적 탐구.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심포지움**.
- 조궁호(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1):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 5 권 1호, 59-81.
- 최봉영(1999). 몸과 마음에 대한 분석 - 가려진 몸, 분리된 마음. **미간행원고**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제 14장(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1997).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131-143.
- 최상진(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3-237.
- 최상진(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39-350.
- 최상진(1990).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 9권, 1호**, 74-86.
- 최상진 · 김기범(1999).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 5 권 1호, 137-150.
- 최상진 · 김기범(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최상진 · 김기범(1999). 한국인의 self에 문화심리적 조명.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최상진 · 김기범(1998). 체면의 내적구조.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59-577.
- 최상진 · 김정운(1998).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12 권 2호, 79-96.
- 최상진 · 박수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

- 논문집, 69-78.
- 최상진 · 유승엽(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발표논문집*, 377-388.
- 최상진 · 유승엽(1994).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 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 6권 제 2호, 137-157.
- 최상진 · 이요행(1995). 한국인 핏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발표논문초록*, 327-338.
- 최상진 · 이장주(1998). 문화심리학의 성격고찰: 한국인심리학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23-529.
- 최상진 · 최수향(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1-9.
- 한규석(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 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 6권 1호, 132-155.
- 한덕웅(1994). 퇴계 심리학: 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Abelson, R. P.(1981).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e script concept. *American Psychologist*, 36, 715-29.
- Bartlett, F. C.(1932). *Remember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m, S., & de Jong, H. L.(1997). *Theoretical issues in psychology: An introduction*. London: Sage.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 Bond, R., & Smith, P.(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ment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 111-137.
- Bruner, J. S.(1990). *Acts of meaning*.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J. S.(1993). Do we "acquire" culture or vice versa?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515-516.
- Bruner, J. S., & C. C. Goodman(1947). Value and need as organizing factors in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2, 33-44.
- Choi, S. C.(1991). Cheong: The socio-emotional grammar of Koreans.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Series,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Hawaii, January*.
- Choi, S. C.(1994). Shim Jung psychology: The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Psychologies: Indigenous,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sian Workshop in Korea, Seoul, Korea*.
- Choi, S. C.(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hoi, S. C., & Kim, K.(1999). The ShimCheong(心情) therapy for Koreans: A formulation of 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2nd World Congress for Psychotherapy the World Council for Psychotherapy, Vienna, July 4-8, Austria*.
- Choi, S. C., & Kim, K.(1999).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

- ogy, August 4-8,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K.(1999).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Che-myon.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J-Y, & Kim, K.(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 Choi, S. C., & Choi, S-H.(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J.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pp. 57-84). Seoul: Dong-A Publications.
- Choi, S-H., & Choi, S. C.(1991). Che-myon: Koreans' social fac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Series,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Hawaii, January.*
- Cole, M.(1996). *Cultural Psychology: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anziger, K.(1997).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 Danziger, K.(1980). The history of introspection reconsidered.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16*, 241-62.
- Farr, R. M.(1996). *The roots of moder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ss.: Blackwell.
- Festinger, L.(1980). Looking backward. In L. Festinger(Ed.), *Retrospections in social psychology*.
- Gergen, K. J.(1994).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ergen, K. J.(1985). The social constructionist movement in moder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0*(3), 266-275.
- Gergen, K. J.(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ilbert, D. T., Fiske, S. T., & Lindzey, G.(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 2*. Boston: McGraw-Hill.
- Greenfield, P.(1999). Three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culture: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can they go?.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 Habermas, J.(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Volume 1*. (T. McCarthy, Trans.) Boston: Beacon.
- Hanson, N. R.(1958). *Patterns of discovery: An inquiry into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e, R.(1986).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s*. NY: Blackwell.
- Harre, R., & Gillett, G.(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 Hastorf, A., & Cantril, H.(1954). They saw a game: A case stud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129-134.
- Jahoda, G.(1992). Foreword. In J. W. Berry, Y. H. Poortinga, M. H. Segall, & P. R. Dasen(Eds.),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pp. 10-1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nnings, H. S.(1899). The psychology of protozo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0*. 503-515.
- Jones, E. E.(1998). Major developments in social

- psycholog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pp. 3-57). Boston: McGraw-Hill.
- Kitayama, S., & Markus, H.(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ontiev, A. N.(1981). The problem of activity in psychology. In J. V. Wertch(Ed.), *The concept of activity in Soviet psychology* (pp. 37-71). NY: Sharpe.
- Lonner, W. J., & Adamopoulos, J.(1997). Culture as antecedent to behavior. In J. W. Berry, Y. H. Poortinga, & J. Pandey(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ition)*(pp. 43-84).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Lord, C. G., Lepper, M. R., & Ross, L.(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098-2109.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oscovici, S.(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st, R. H.(1962). Population differences in red and green color vision deficiency: A review, and a query on selection relaxation. *Eugenics Quarterly, 9*, 131-146.
- Przeworski, A., & Teune, H.(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 Ratner, C.(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Y: Plenum.
- Rosnow, R.(1981). *Paradigms in transi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L., & Nisbett, R. E.(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Shweder, R. A.(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1999). The psychology of practice and the practice of psychology.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 Spencer, H.(1871).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2nd. Ed.* London: Williams & Norgate.
- Taylor, S.(1998). Social being in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pp. 58-95). Boston: McGraw-Hill.
- Triandis, H., Malpass, R., & Davidson, A.(1972). Cross-cultural psychology. *Biennial Review of Anthropology, 1*, 1-84.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lner, F.(1994). *Constructive realism: Aspects of a new epistemological movement.* Wien: Braumuller.
- Wertsch, J.(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CA: Harvard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1975). Philosophical remarks. In R. Rhees(Ed.), *Wittgenstein*. Oxford: Blackwell.
Zajonc, R.(1998). Emo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pp. 591-632). Boston: McGraw-Hill.

1 차 접 수 : 1999년 6월
수정본 접수 : 1999년 8월

Misconceptions on the Objectivism, Universalism, and Sociality in Psychology: Challenges from a Cultural Psychology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Gyuseog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e discussed three major conceptual problems inherent in the psychological science. Objectivism was disputed from the construal perspective. Universalism was disputed in two aspects; phenomenology and cultural historicity. Sociality in the current state of social psychology is defined as interpersonal entity and the social vacuum still needs to be filled in. Cultural psychology is a promising alternative to handle all the above problems. We reviewed the divergent perspectives of cultural psychology and categorized them into the cognition-centered approach and the activity-centered approach. A fruitful direction for psychology in Korea is proposed; the excavation of concepts from Korean mind and theory building from it is mandatory.